



공학사랑, 토목사랑



윤 여 진 |

건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yyj0806@konyang.ac.kr

“교수님!! 토목과 들어가면 삼질하는 것 몇 학년 때 배워요?” 몇 년 전 인문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입시홍보를 하는 자리에서 학과설명을 다하고 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한 내용이다. 순간 이거 장난으로 질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로 몰라서 질문한 내용이다. 너무 당황했지만 토목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 및 활동 등에 대하여 따로 불러 설명을 해 주었고 결국 그 학생은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현재 우리과 2학년 학생으로 현재는 군입대중이다.

“토목”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어구 예를 들어 “노가다”, “3D업종”, “주말부부” 등등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 한 학생의 경우를 따지지 않고서도 일반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 전공자가 느끼는 것은 천지차이인데도 말이다.

1970년대 중동의 석유산유국들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회간접시설(SOC)이 필요했던 시기에 특히 건설분야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던 중동붐 시절도 있었고, 88년 올림픽전·후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시절에는 재재난과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은 적도 있었던 소위 잘 나가던 학문이었다.

어느 전공을 선택했던 간에 쉬운 전공이 어디 있겠

는가?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많은 상담을 해 보면 쉬운 전공에, 특히 수학을 하지 않는 전공, 학점따기 쉬운 전공 등을 이야기 하곤 한다. 취업하면 집 근처에서 다니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근무지 배치가 집과 멀어지면 누구나 주말부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필자도 주말부부를 7년 1개월 했지만 토목전공 이외분들도 주말부부 하는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다.

지난 7월 중순에 강릉원주대학교 백중철교수님과 11박 12일동안 시험문제 출제로 같이 한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3일차인가 백교수님이 “글 잘 쓰세요?” 답변은 “연애편지는 많이 써 봤는데 거의 일기수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학회지 간사로 여러 가지 원고를 부탁하는데 무척이나 힘들다고(?) 하시어 몇 시간 심사숙고 끝에 본 원고를 자진해서 쓰겠다고 하여 본 원고를 일기수준으로 쓰게 되었다.

1992년 7월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구원 생활을 시작으로 1999년 8월까지 근무를 했고, 1999년 9월 건양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처음 발령받기 전 총장 면접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모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희망직업이 기술사, 2,3학년에는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기억도 전혀 나질 않았지만...

필자의 부친께서는 충남대학교 건축과 교수로서 39년 4개월 공직을 마치고 이제 퇴임하신지가 벌써 12년이 지나 현재 홀로 사시고 계신다. 본인도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공병소대장이 아닌 보병소대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군시절에 보병소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목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대대장이 위병소 앞 물길작업을 지시하여 사단 포크레인 그리고 숨겨 있는 소대원들과 작업 한 경험도 있다.

제목 그대로 공학사랑, 토목사랑 이야기를 해 보면,, 재작년 바로 위 형님이 조카의 입시상담을 한적이 있다. 당시에 입학부처장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수도권 대학에 학과를 놓고 고민을 하던 차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내가 토목을 전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공보다는 직장생활도 오래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토목을 전공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과 형님이 지겠다는 다짐을 받고 조카는 결국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로 입학했다. 물론 그전에 기계전공이나 건축전공이나 고심했었다고 한다. 1학년과 2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군입대 후 만기제대하면서 본인이 연세대학교로 편입준비를 한다고 하여 멘토로서 작은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준 덕분에 다행히 금년도 1학기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로 편입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였고 금번 첫 학기에는 전액장학금도 받았다고 한다.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추후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느냐 하는 진로를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으며 작은 아빠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형님 말씀에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

친가 이외에 처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큰 처남에 큰조카도 이런 이유로 현재 건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역시 둘째 처조카도 건축과 1학년을 마치고 군제대후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중학교 3학년이던 우리 아들이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는 체험으로 아빠의 수업을 참관하게 한 적이 있다. 3학년 수리학 수업시

간에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수업을 3시간 했는데 아빠의 수업 후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등에 대해서 스스로 없이 조언(?)을 해 준적이 있다. 이 수업 후 우리 아들이 “3대째 박사가족이 되고 싶다” 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 아버지, 나, 그리고 아들놈까지...

한편으로는 대전하고 지금 고1학생인데 꿈만 크게 가진 것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할 예정이고 본인의 적성이 맞다면 토목을 적극 추천했는데 반응이 역시 좋다.

현재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문과 비율이 훨씬 높다가 최근 서서히 같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국내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학과의 선택기준이 취업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며 의외로 학생들의 부친 및 친지들이 건설업을 하는 분들로 이들의 권유로 토목전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곤 한다.

특히, 1학년 학과 입학 후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입학시의 성적을 보면 하위권이지만 학과의 만족도(수업, 교수진 등)는 거의 상위에 속할 정도로 높고 취업의 지표로 보면 정규직 취업률이 타 학과에 비해 월등하여 전체적으로는 학교취업률에 상당히 일조를 담당하는 것도 우리 공학분야, 토목분야이다.

학과 홍보브로셔에 항상 넣는 문구가 있다. “토목은 의사가 건강을 다스리고 법조인이 질서를 다스리듯 자연을 사랑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다스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첨단의 공학입니다.”

지금도 전국 아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저마다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학인 그리고 토목인들은 저마다의 자부심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하루빨리 국내의 건설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남북한 통일이 되면 사회간접시설의 투자로 토목이 그



어떤 학문보다도 대우받고 서로가 오고 싶어 하는 학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위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로 “학문의 싸이클은 돌고 돈다” 고 한다. 아직

그 때가 이른 모양이다. 많이 준비하고 공학을 사랑하며 토목을 사랑하자.

토목화이팅 !!!! 🌀